

1. 기술 지원직의 주요 업무

클라우드를 크게 2단으로 나누어 교육 및 활동 한다. 각자 맞는 재능에 따라 해당 분야에 할당되어 업무를 진행. 각 분야는 [서비스 파드, 마스터, 워커 노드, 데브옵스 툴 등] 과 [레퍼런스 기반 프로젝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관리 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파드 관리부터 시작하여 모니터링 및 CI/CD까지 전반적인 관리 및 기술 역량을 알아야 한다.

하이퍼 클라우드를 통한 파드 및 컨테이너 관리, 개발자 사이드 이동하여 간단한 소스코드 빌딩, 배포 자동화까지 시연으로 보여주심(웹 및 소스코드)

아 이거 사진 찍어둘걸 고민하다 안찍었는데 야발

2. 개발자 업무 및 세션이동 가능?

가능.

3. 거주지 선택 추이

가능하면 직장 가까운 곳이 최고

4. 티맥스 제품의 특별한 경쟁력 ?

장점 : 사용자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밀접하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친절하고, 추가적으로 만져야되는(연동 등) 요소들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 매우 적다.

단점 :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하다. 얼마나 공이 들어갈까. 아니 진짜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볼걸 흠

경쟁사와 비교하였을 때 Name Value가 적은 탓에 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걸 선점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가 겪는 단점이 아닐지. 극복 해야될 점 이라고 해야 되나?

5.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지

각 팀마다, 각 팀장마다 다르다. 그래도 긍정적 사고, 열심히 하는 인재가 인정을 받는 것은 공통적

6. 슈퍼앱에 대하여 기술 지원팀이 하는 일은 ?

➢ 슈퍼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슈퍼 워크에 나온 MaaS에 대한 개념으로, 개발 언어에 대한 통합, DB의 통합, 서비스의 통합 등 각기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여러 분야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들을 분야별로 모아 통합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슈퍼앱의 본질

이다.

7. 개발자 의존적이 되지 않는 클라우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

6번의 답과 유사하다며 넘어감

8. IT업계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쓰고 공부해야 할 분야(트렌드) ?

클라우드나 AI가 괄목 받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즐길수 있는 분야)를 선택 하는 것이 옳게 된 길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맞말추

9. 시간이 지날수록 클라우드의 가치는 줄어들고, 온프레미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

클라우드가 모든 사업성에 옳다, 알맞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다시금 찾는 분야나 일정 시기가 찾아옴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뿐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우드가 베이스가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있다고 무방하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약 5년차이로 뒤따라 가고있고, 미국은 5년전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화 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다다랐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도입부분에 서있다고 보면되고, 일본은 그 후발주자. (> 그렇다면 일본을 공략하는 것은 어떨까?)

10. 인프라 엔지니어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경력자들은 프로젝트에 관여한 것들을 이력 및 포폴로 남긴다. 신입 입사때와는 다름. 하지만 코딩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가 나왔고, 코딩 공부를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이상, 코딩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고리이고, 그와 관련된 지식, 깃허브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나 자료들을 잘 쌓아놓는 것도 경력이 쌓여간다고 해도 아주 중요하다.

번외 들.

1. GPU로 연산을 돌리면 CPU의 연산 효율의 몇 천 배에 달하는 병렬적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GPU로 연산을 돌리기도 하며, 보통 GPU-CPU-GPU-CPU 번갈아가며 연산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GPU의 연산 효율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서 주목 받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한 가격상승이 된 것.
2. 기술 지원 업무 특성 상 업무 시간 외 근무가 매우 잦은 편(야근~주말 근무+지방외근). 술도 자주 먹는 듯? (이건 팀장님이 좋아하시는건가?)
3. QA 및 컨설팅에 대한 추천도 들음.

QA는 품질 테스터? 정도로 생각하고, 컨설팅은 BM과 다르게 제품 가이드?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라고 한다. QA, PS, 컨설팅 3가지 직업 군 모두 기술적 역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해 진다고 한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 아마)

#### 4. Managed K8s, On-Premiss K8s, Public Cloud, Private Cloud 에 대한 이야기

티맥스가 판매하는 하이퍼 클라우드가 Managed K8s냐고 물으면서 시작, 하이퍼 클라우드는 종류로 따지자면 Private Cloud에 속하고, AWS, Azure 등의 큰 회사들은 Public Cloud를 제공하며, 이들은 메가존, 삼성 SDS, LG CNS, NHN Techourus Corp, SK C&C 등의 회사들과 파트너 협약을 맺어 고객에게 엔드 투 엔드(ETE) 솔루션을 제공한다.(Ex. AWS MSP) 그리고 요즘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대세이며, 티맥스가 발표한 슈퍼앱은 퍼블릭 클라우드쪽의 영역이라는 이야기.

#### 5. 현업자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정상이다.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이야기는 블라인드 정도면 모를까 세세한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인터넷에 퍼다 나룰까. 아무리 정보가 공유된다고 한들, 본인들 밥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일 뿐, 모든 개발이나 연구 등 현업자들의 이야기까지 퍼다 나르는 수준은 아니다.

#### 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와 명백히 다르지만 그 쓰임새 또한 명백히 다른곳에 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쓰인다고 하여 멀티 클라우드가 도태되 도태 하는 것이 아니다.

#### 7. Immutable Infrastructure (불변 인프라) 에 대하여

불변 인프라는 현재 쓰고 있는 컨테이너 개념, 이미지화 개념을 생각하면 쉽다. 가변 인프라는 클라우드가 상용화 되기 이전에 쓰이던 서버의 형태들을 떠올리면 그것이 가변 인프라이다.

#### 8. 슈퍼 클라우드 사용하면서 힘들었던 점.

권한에 막혀서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제어를 요청 할 때 부탁드리는 부서가 다른 것을 보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떠올리며, 작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에는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좋을 것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잊기전에 써두는 것. 나중에 더 잘 알면 또 바뀌겠지)

9. 초반에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애써 대학교 이야기 등을 꺼내려고 하셨던게 생각이 남. 경직 되어있던게 티가 많이 났었던듯하다.
10. 점심은 뭐시기 파스타집 가서 먹음.(지오쿠치나) 지오크레마.. 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이거 대표메뉴네 어케 찍었누? 수요미식회에 방영되었었다고함.
11. 기억안난ㄴ다